

## 똥

차수진

똥.  
아주 오랫동안, 그녀의 머릿속에 똥도는 단어는 그것뿐이었다.

\*  
그녀는 작년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했다. 결혼한 지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니, 신혼이라면 신혼이었다. 아내라는 이름을 갖자마자 그녀의 삶은 알게 모르게 달라졌다. 그녀는 시댁과 친정의 크고 작은 경조사에 꼭 참석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남편의 아침 반찬은 몰라도 저녁 반찬은 꼭 준비해야 하며, 주말마다 밀린 화장실 청소와 간식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삼십 대 후반에 결혼을 한 탓인지,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라는 양측 부모의 성화 또한 심했다. 그들은 나이가 더 들면 아이 키울 기운이 모자라 힘들 거라고 부드럽게 돌려 말했지만, 표정만은 단호했다. 마치 이미 너는 아이를 낳을 때 힘 줄 기운도 없을 만큼 늙어 빠졌고, 조금만 더 늦었다가는 폐경하고 말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았다.

그녀의 시부모는 여자는 조신해야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일은 사회악이며 그중에서도 아들을 낳지 않는 것은 철거지악이라고 믿는 옛날 사람이었다. 친정부모도 옛날 사람이기는 마찬가지여서 시댁 어른의 말씀이 법이고 진리라는 말을 그녀 귀에 딱지가 앉도록 해왔다.

그럼에도, 그 옛날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오늘날의 여성은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하고 배운 값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녀는 일을 계속했다. 자신은 언제 어디서나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큰소리를 쳐왔던 남편은, 양측 부모님의 잔소리만큼은 전혀 막아주지 못했다. 그게 전통적인 장유유서 정신 때문인지, 자신은 잔소리에서 한걸음 비켜나 있기에 생긴 여유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직장에서는 남성 못지않게 바깥일을 하고, 가정에서는 여성답게 집안일을 하느라 꽤나 지쳐 있었지만, 하루에 두세 번씩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질려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다녀야 했다. 처음 들어갈 때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걸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어쩐지 서로 머쓱해 일 미터 간격을 두고 앞뒤로 걸어왔고, 이후 부부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졌다.

배란기에 맞추어 낳을 받고, 그날마다 잡자리에 들고 하는 모든 일에 낭만이나 애정은 없었다. 그것은 수치와 과학이 지배하는 세계였다. 그래도 그녀는 가능한 자연수정을 원했다. 같은 부서 여직원인 인공수정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다 결국 퇴사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따금 여직원들이 부작용 때문에 입원할 때마다 사람들은 말했다. 혼자만 애 낳느냐고, 누구나 하는 일에 웬 유난이냐고. 그녀는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그 결과, 몇 개월 동안 그들 앞에는 한 달에 며칠씩 밤에 하는 조금 부끄러운 숙제가 놓였다.

병원에 다닌 지 육 개월 만에 임신테스트기의 빨간 줄이 두 개로 늘어났다. 그녀는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보다 이제야 한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이라도 받아야 될지 모를 억울함이 가실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양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뭘 잘했는지는 몰라도 ‘장하다’는 칭찬이 돌아왔다. 그제야 학창시절 해마다 받아온 ‘모범생 표창장’이라도 받은 양 뿌듯해했고, 자신의 뱃속에 무언가 있다는 실감이 났다.

\*  
고등학교생 때 참고서를 들고 화장실에 다니면서부터였던가? 그녀는 긴 지병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변비’였다. 기나긴 변비가 치질을 이끈 탓에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후 시도 때도 없이 변비와 치질이 재발을 거듭했지만 좀 쉬면 좋아지기도 하니까 그 정도는 받아들일 만했다. 요즘 세상

에 한두 가지 지병이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게 다 스트레스 탓이라니까 결혼을 하면, 사람들에게 어엿한 ‘보통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면 모든 게 좋아질 테지.

그러나 결혼 후에도 변비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사방이 막힌 화장실에서 붙어진 얼굴로 혼자 끙끙대야 했다. 달라진 것은 화장실 벽 무늬 정도였다. 신혼집의 화장실 벽은 인테리어에 일가견이 있다는 시모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었다. 친정에서는 붉고 푸른 꽃잎이라도 몇 장 그려져 있었건만, 지금의 화장실 벽은 그냥 범위를 좀 넓힌 바둑판 같았다. 규칙적으로 배열된, 하얗고 까만 사각 타일만 들여다보고 있기에는 장 속 찌꺼기를 배출해 내는 시간이 너무도 지루하고 공허했다. 지나치게 매끈한 타일을 보고 있다면, 어디선가 바둑알이라도 나타나 머리 위로 우수수 쏟아질 것 같았다. 할 일이 필요했다. 화장실 벽에 걸린 휴지를 돌돌 말고, 펴고, 다시 접고, 붙이고, 떼고 이래저래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어느 때처럼 휴지를 말고 퍼다가 힘을 주며 쥐어짤 때쯤, 갑자기 배가 싸하니 아팠다. 많이. 아주 많이. 임신 칠 주 정도면 벌써 고통이 느껴지나? 격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손에 맡아 쥔 휴지를 고이 접어 주머니에 넣고 병원에 갔다. 갓 태어난 새끼 송아지처럼 파들대는 다리로, 혼자서.

“안타깝네요.”  
의사가 염소 똥만한 점을 짚으며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식은땀을 닦았다. 눈물을 닦아야 할 것 같았지만, 잠을 설친 눈은 그저 뻥뻥했다. 그녀는 ‘이유 없는’ 유산의 ‘이유’를 찾으려고 머릿속으로 애를 썼다. 내장지방으로 아이를 놀려 대서, 지나치게 팔약근에 힘을 주어서 아이의 심장이 갑갑했던 것은 아닐까? 평소보다 휴지를 쥐어짤 시간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아이의 뇌에게 무리가 간 걸까?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반대로 모든 것이 이유가 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명제가 자리잡았다.

‘모든 게 내 탓이다.’  
아니다. 더 정확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였다.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꺼냈다면 그녀는 말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또 사람 아니겠는가? 화장실에서 울컥하는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와 다시 병원에 간 건 그 며칠 뒤였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선지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감은 나지 않았다. 묵은똥을 풀고 있을 때처럼, 쏟아졌으나 다 쏟아내지 않은 기분이었다.

퇴원한 다음날, 출근하는 남편이 그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려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

“똥.”  
남편은 그녀의 말을 잘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저 그녀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고는 유산에 따른 휴가는 자신이 총무부서에 말해두겠다고 자리를 떠났다. 남편의 무심한 반응은 그녀 자신조차 방금 한 말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잠깐 동안 벌어진 그 일을 잊었다. 하루 종일 벽만 보면서, 이따금 SNS나 문자로 직간접적으로 유산을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다. 입을 열어 대화할 일이 없었으므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지나갔다.

문제는 밤이었다. 남편이 퇴근했을 때,

남편은 오늘 몸은 좀 어땠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는 아침과 똑같은 말이 나왔다.

“똥.”  
이번에는 남편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 남편은 그녀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한 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해주어야 할지 물었다. 그녀는 그런 뜻이 아니다. 말이 헛나갔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입에서는

“똥.”  
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남편은 이 여자가 혹시 지금 자신을 똥이라고 욕하는 건가? 유산의 원인을 일에 바빠 가정에 소홀했던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남편은 같은 회사라 잘 알지 않으나, 지금 결산 시기가 자신이 속한 재무팀으로서 가장 바쁜 시기다. 이해심 많은 네가 왜 이러느냐고 반쯤 양해를 구하고, 반쯤 항의를 표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도 그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똥.”  
한 글자만 반복했다. 그러더니 이내 노트를 찾아와서는 불펜으로 몇 글자를 써 내려갔다.  
- 입에서 ‘똥’이라는 말 밖에 안 나와. -  
남편의 얼굴을 장식했던 억울하고 화난 표정이 황당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  
그녀는 이번에도 병원에 갔다. 다만 이번에는 산부인과가 아닌 정신과였다. 모범생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자니,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정신과 의사는 일시적인 쇼크로 인한 발작 증세로 보인다고 했다. 꾸준히 내원해 상담을 받아 보자고도 했다. 그러나 병원에 가봤자 입에서 ‘똥’밖에 말할 수 없을 그녀는 상담을 받고 싶지 않았다. 필답이야 가능했지만, 아이의 죽음에 자신의 똥이 관련되어 있다는 비논리적인 믿음을 털어놓기도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믿음이라도 필요했다. 자신의 부주의라는 원인이라도 마련해 두어야, 다음에는 더 조심하고 더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이대로 실패할 수 없었다. 온 가족이 바라는, 비록 자신도 바라느지는 모르겠지만, 귀한 아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늘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 “똥”이 담긴 그 순간부터, 그녀의 생활은 엉망이 되어갔다. 회사에서 중간급에 위치한 그녀는 위로는 보고할 것이 많고 아래로는 전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남편이 부끄럽고 황당한 얼굴로 모든 부서장과 동료, 선후배에게 양해를 구했어도 그녀가 무의식중에 입 밖으로 내는 ‘똥’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거래처의 견적서를 검토하거나 복잡한 수식을 사용해 대형 프로젝트의 손익을 추정하거나 기획안, 결과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등의 문서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타 부서의 협조를 구할 때도, 후배들에게 일을 분배하고 가르칠 때도,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할 때도 그녀는 긴 메일을 써 보내야 했다. 메일을 보냈다는 전화를 걸고도 그녀는 ‘똥’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담긴 억양으로 사안의 긴급함이나 중요성을 추리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부서장이 그녀를 회의실로 불렀다. ‘똥’이라는 말 외에 할 수 없게 된 뒤로, 그녀가 부서장과 단둘이 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한때 그녀와 개인적인 고민도 나눌 정도로 친했던 부서장은 딱딱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병가를 좀 내 보는 게 어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가 일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의 두세 배가 되었고, 그래서 다른 동료들의 일거리가 두세 배로 늘어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서장은 후련한 얼굴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벌집처럼 촘촘하게 나

뉜 파티션 안에서, 실패한 일벌이 된 그녀는 남몰래 한숨을 깊이, 들이켰다.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정시 퇴근을 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집에서 밀반찬을 만들었다. 남편이 좋아하는 땅콩조림과 오징어채 볶음을 내열 유리 용기에 넣을 때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부서장이 위로주를 사준다고 하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는 것이었다. 위로의 사유는 그녀의 병가였다. 끊임없는 위로의 손길에 남편은 그녀의 얼굴도 볼 수 없을 만큼 바빠졌다. 그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휴지를 돌돌 말고 펴면서 TV를 보다 잠들었다.

다른 쪽도 순탄하지 않았다. 시가에 발길을 끊었는데, 그녀의 증세를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그녀가 유산 이후 충격이 커서 아무와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을 돌려댔다. 그러나 유교사상을 신준단지처럼 떠받드는 시댁에서는 꽤나 괴심해하는 눈치였다. ‘왜 전화를 하지 않느냐, 반지도 않느냐’, ‘죄송하다고 사죄는 못할망정 오히려 우리가 네 눈치를 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나’ 하는 문자가 끊임없이 도착했다. 사정을 아는 친정에서도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다. ‘같이 무당이라도 만나러 가자’, ‘애 문제고 입 문제고 다 몸이 허해서 그런 것이니 보약을 좀 지어 보자’, ‘머리나 헛바닥에 침을 맞아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과 사이가 벌어진 것이었다. 그녀와 남편은 서로 애정을 느꼈다가보다는 마침 혼기가 차다 못해 넘쳐흐른다는 지적을 받던 차, 그나마 남은 주변 미혼자 중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한 터였다. 그러나 대화가 사



삽화-신기영

다. 이미 그녀의 상태를 알아 배려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겠지만, 그녀가 직장에서 ‘똥’ 한마디로 버틴 한 달여 동안 그녀 때문에 꼬이거나 늘어난 업무로 불만이 쌓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았다. 돌이켜보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그녀를 원망하는 소리가 때로는 의도치 않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등 뒤에서 들려왔었다.

친구들은 다른 이유로 연락이 없었다.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과 아이를 뒤흔다꺼리에 바빠서 평소에도 일 년에 한두 번 연락을 할까 말까 했다.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은 전쟁 같은 직장생활을 버티느라 더더욱 연락을 할까 말까 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실직 후 이민을 갔고 그다음으로 친한 친구는 이혼 후 연락두절이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자신의 상태를 구구절절이 풀어놓을 사람이 얼마 없다는 점은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했다.

퇴원한 다음날 출근하는 남편이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려 입을 열었으나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

어떤 말을 해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똥” 한 글자만 반복했다

라진 그들 사이에는 나눌 것이 없었다. 몸의 대화도 마찬가지였다. 성적 긴장감이 오고 가야 할 순간 그녀의 입에서는 흥분을 알리는 신음소리 대신

“똥...”  
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남편은 뜨악해진 얼굴로 주섬주섬 몸을 일으키기를 몇 번 하더니 곧 그녀 곁으로 아예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사람들이 ‘불쌍해서 어쩌나, 아직 깨가 쏟아져야 할 신혼 때인데...’라며 남편을 불쌍하게 보던 시선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잠시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막상 미안하다고 말을 하려 들면 할 수가 없었고, 또 왜 미안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어서 입을 다물었다. 물론 메모도 전하지 않았다.

침묵이 계속됐고 2세 계획도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다. 다음에 찾아올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그녀의 결심, 즉 ‘다음에는 잘하자, 다음에는 화장실에서 죽을 듯이 길게 힘을 주지 말자’는 결심은 실행에 옮겨질 기회를 잃고 말았다. 남편은 그녀에게 당분간 떨어져 있는 게 서로를 위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슬그머니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간 후 시댁의 문자가 뜸해졌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부재가 크게 섭섭하지 않았다. 다만 잠시 두려웠다. ‘삶의 정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  
그럼에도, 그녀는 그럭저럭 생활을 이어나갔다. 아직 병가 중이라 급여가 일부분 나와서이기도 했지만, 또 그녀가 침묵을 다지는 데 필요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게 되어 서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말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했던 것이다.

집은 전체 기간이 남아 있었고 남편은 시댁이 편한 건지 그녀가 불편한 건지 연락 한번 없었다. 동료들 역시 연락이 없었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카드만 내밀면 되었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대화레 봐야 영수증은 필요한지, 포인트는 적립할 것인지, 비닐봉지가 필요한지 정도였다. 의사 선택의 폭은 예, 아니요 둘 중 하나로 한정되었으므로 고갯짓이나 손짓만으로도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말’의 부재는 그녀가 삶을 이어가는 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동안 했던 남편과의 대화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 공동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었다. 앞으로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회사에서 짜는 연간 일정이나 월간 일정이 좀 더 긴 단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나 할까? 그녀 일상의 대부분이었던 바깥일마저 걷어내고 나니, 그녀가 ‘똥’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 전이나 후나 그리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남편도 있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그녀 삶에서 중심이 될 만한 것들이 빠져나갔는데, 오히려 배수구를 막고 있던 머리카락 문치를 단번에 빼낸 느낌이 들었다. 비로소 흘러갈 것이 흘러가고, 마땅히 버려져야 할 것들이 그녀 속을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입은 ‘똥’으로 가득 찼을지언정, 그녀의 머리와 가슴과 몸은 전에 없는 청량감이 일었다. 그것은 ‘똥’이 그녀에게 선사한 휴식이었다.

\*  
- 합창단원 구합니다. -  
홍보스티커를 발견한 곳은 지역 내 시립 도서관의 화장실이었다. 남아도는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해 도서관에 들렀다가 변의를 느끼고 화장실에 앉은 참이었다. 몇 칸 남지 않은 공용 휴지로는 말고 접고 돌릴 여분이 없어, 화장실 문 앞의 낙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서관 직원들이 관리를 할 텐데도 조악한 홍보스티커가 두 장 연달아 붙어 있었다.  
▶15면에 계속